

No.43

# Japan Weekly Digest

2010. 7. 12 ~ 7. 18

## □ 금주의 이슈

- 소행성 탐사우주선 하야부사 2호기 발사계획 발표
- 혼다, 국내자동차 국내생산 거점 재편
- 닛케이BP 환경브랜드조사, 파나소닉 1위 선정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내각각료, 잇따라 야당과 협의필요성 제기
- 경단련 회장, “소비세가 선거 패인이 아니다”
- 미쓰비시,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태양열발전시스템 개발 발표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에코 포인트 실적 발표
- 일철도, 한국 등 해외기업과 제휴추진(GS건설)
- 도시바, 삼성 추격을 위해 NAND메모리 공장증설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일본기업 업종분석(자동차편) -주간 동양경제



**한일경제협회**  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□ 금주의 이슈

- 소행성 탐사우주선 하야부사 2호기 발사계획 발표
  - 日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는 14일, 소행성 탐사우주선 「하야부사」 2호기를 2014년에 발사하는 계획 발표
  - 소행성에서 물체를 충돌시켜 만든 인공 크레이터의 바닥에서 나오는 물질을 수집하고, 그 유기물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
  - 하야부사 2호기의 특징은 탐사기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실용화에 있음
  - \*하야부사 1호기는 지구에서 3억km 떨어진 소행성 이토카와에 착륙해 우주 물질을 캡슐에 싣고 지난달 13일 기적적으로 지구로 귀환
  - 하야부사 2호기의 개발비용은 100억 엔 정도로 알려짐
  
- 혼다, 친환경자동차 대응을 위해 국내생산 거점 재편
  - 혼다는 기존의 경자동차 공장건설을 백지화하고, 금융위기로 건설을 중단했던 요리이 공장을 2013년을 목표로 가동시키고, 하이브리드 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
  - 일본국내 공장에서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, 이를 토대로 친환경자동차를 양산한다는 계획
  - 친환경자동차생산을 위한 생산거점 재편은, 주요 수출국인 북미에서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
  
- 닛케이BP 환경브랜드조사, 파나소닉 1위 선정
  - 닛케이BP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환경활동 호감도를 조사한 2010년 「환경브랜드조사」에서, 파나소닉을 1위로 선정
  - 냉장고나 에어컨 등 다양한 친환경 가전제품을 통해 횡단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, 환경 이미지를 높인 것이 평가받았다고 분석
  - 과거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「프리우스」 리콜 영향으로 2위로 하락(3위: 산토리, 4위: 혼다)

## □ 일본 정재계 소식

### ○ 내각각료, 잇따라 야당과 협의 필요성 제기

- 13일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참의원선거 패배로 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밀돌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
- 우정개혁을 담당하는 하라구치 총무장관, 지구온난화를 관할하는 오자와 환경장관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
- 다만, 매니페스토의 수정에 대해 신중한 각료도 많아, 야당과 연계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불투명
- ※ 나오시마 경산상은 법인세 인하를 예로 들면서 이는 자민당 시대부터 논의되어 왔고 공감대를 형성해온 사안으로 야당과 수정협약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한 입장

### ○ 경단련 회장, “소비세가 선거 패인이 아니다”

- 경단련 요네쿠라 회장은 12일, 참의원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수가 깨진 것에 대해, 「소비세 논의가 패인이 되었다는 생각은 없다」는 견해를 밝힌 뒤, 「향후, 소비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」고 언급
- 여당의 패인에 대해 요네쿠라 회장은 「간 정권 이전, 8개월을 국민들이 평가했다. 아직 비례는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, 국민들의 지지는 그다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」고 평가

### ○ 미쓰비시,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태양열발전시스템 개발 발표

- 미쓰비시중공업은 12일, 세계 최초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새로운 태양열 발전시스템 상용화 목표 발표
-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공동으로 2013년 2.5메가와트 규모의 플랜트를 가동시키고 15년에는 10메가와트 규모의 플랜트로 상용화하는 계획을 발표
- \*종래의 태양열발전은 물을 증발시키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었으나, 새로운 방식은 **고압의 공기를 태양광으로 가열하여 터빈을 돌림**(물 없는 사막에서도 발전 가능)
- 물과 펌프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비를 간소화 할 수 있고 발전비용을 약20~30% 정도 낮출 전망

## 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### ○ 경산성, 에코 포인트 실적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13일, 에코 포인트 활용에 의한 친환경제품 보급촉진사업 실적(작년 7월에서 올해 6월말까지 1년간) 발표
- 6월30일 기준 신청접수 건수는 1,700만 205건이며, 이중 에코 포인트 발행 수는 1,571만 3,663건 (금액기준: 2455억)
- 에코 포인트 발행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텔레비전으로 전체의 74.5%를 차지
- \* 취득한 에코 포인트는 프리페이드 카드, 상품권 등으로 교환

### ○ 日철도차량회사, 한국 등 해외기업과 제휴추진 (GS건설)

- 닛케이신문은 14일, 일본의 철도차량회사가 해외 도시철도 인프라 수주를 위해 한국 등 해외기업과 잇따라 제휴를 체결하고 있다고 보도
- 철도는 이산화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친환경 대량수송 수단으로 신흥국 등 해외에서 건설 계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과 제휴를 통해 공동 수주하는 것이 목적
- \*해외의 철도 인프라는 매년 2~3%성장이 전망되고 있음
- IHI는 GS건설과 공동으로 9월 서울에서 예정된 「동북선 공사」에 입찰하고, 11년에는 수원에서도 공동으로 입찰할 예정

### ○ 도시바, 삼성 추격을 위해 NAND메모리 공장증설 계획

- 도시바는 14일, NAND형 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윗카이치 공장에 美 선디스크와 합작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공동운영한다고 발표
- 스마트 폰 등 NAND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는 제품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
- 새로 건설되는 공장에서는 회로선폭이 20나노미터라는 최첨단 미세가공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켜 삼성전자를 추격한다는 계획
- \*NAND플래시 메모리 세계시장 점유율: 삼성전자 38.5%, 도시바 33.8%

## 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## 일본기업의 업종 분석(자동차편)

## 주간 동양경제 특집

- 일본경제가 회복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, 실적 개선을 저해하는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
- 악화되는 경제지표도 있고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
  - \*5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1% 감소하는 등 3개월 만에 악화
  - \*5월 실업률도 5.2%로 전월대비 0.1% 악화

## □ 자동차업계

- 2010년도 세계 자동차시장은 전년대비 3% 증가하는 6,503만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회사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
- (1) 주력차종의 모델변경 시차가 회사별로 존재
  - 후지중공업은「레거시」가 2009년말 새로운 모델을 발표하여 실적 회복에 성공했으나, 도요타 카롤라와 캠리는 모델 변경이 지연되면서 회복이 정체
- (2) 보조금제도 축소로, 도요타에 최대 역풍 가능성
  - 최대 25만 엔의 보조금 + 에코 카100% 면세로 팔렸던 프리우스가 보조금 축소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
- (3)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리스크도 또 하나의 과제
  - 지금까지는 유럽 재정위기나 중국 스트라이크 등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, 중기적으로 업적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

## 《자동차부문 실적 회복도 랭킹》

순위	회사명	리먼 사태전 회복도(%)	예상경상이익 (백만엔)	경상 이익율(%)	예상PER(배)
1	후지중공업	▲ 7.6	42,000	87.8	15.6
2	다이하트M	▲29.4	47,000	7.2	16.3
3	스즈키	▲33.1	105,000	11.9	23.2
4	혼다	▲43.1	510,000	51.7	11.7
5	히노	▲48.8	21,000	-	24.6
6	닛산	▲55.2	343,000	65.1	16.1
7	이스즈	▲61.6	47,000	312.5	21.7
8	미쓰비시	▲76.7	20,000	54.1	127.4
9	야마하	▲77.9	31,000	-	42.9
10	마쓰다	▲78.4	32,000	589.1	25.0
11	도요타	▲86.5	330,000	13.2	32.3

\* 리먼사태 전 회복도(%)= ((이번분기 예상경상이익÷리먼사태 전 경상이익)-1)×100

## 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- 『일본의 그린·이노베이션은 세계를 무대로』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, 7월13일
- 일본은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, 에너지절약기술을 포함한 온난화 대책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, 일본의 그린·이노베이션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음. 온난화 대책에 공헌할 수 있는 일본의 기술을 세계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
- \*출처: <http://www.mizuho-ir.co.jp/publication/column/environment/2010/greeninnovation0713.html>
- 『일본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정당의 거버넌스』 PHP종합연구소, 7월15일
- 이번 선거에 있어 민주당의 주된 패인은 정당내의 거버넌스, 즉 정권운영이나 당내통치 능력이 낮다는 점에 있음. 향후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것은 매니페스토를 수정하고 그 이해를 국민에게 구해야함.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결속하고, 하나의 팀으로서 정국을 이끌어야함
- \*출처: [http://research.php.co.jp/topics/pdf/100713\\_nagahisa.pdf](http://research.php.co.jp/topics/pdf/100713_nagahisa.pdf)
- 『일본의 벤처육성사업은 성공하고 있는가』 과학기술국제교류센터, 7월15일
- 일본의 벤처는 기초적 연구 성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개발된 우수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화하려는 상상력·구상력·전개력·기획력, 즉 전략·전술력에 문제가 있음. 이것이 일본에서 벤처 기업창출이 더딘 이유 중 하나
- \*출처: <http://www.jistec.or.jp/Report/vol76/01.pdf>

## 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7월 12일(월)	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 ○ 6월 기업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중고자동차 등록대수 발표(자동차판매연합)
7월 13일(화)	○ <b>한일 그린IT 워크숍 개최(인천)</b> ○ 6월 소비자동행조사 발표(내각부) ○ 5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
7월 14일(수)	○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(15일까지)
7월 15일(목)	○ 3년물 개인 국채발행(재무성) ○ 전국 지사회의 개최(와카야마현, 16일까지) ○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 기자회견
7월 16일(금)	○ 7월 금융경제월보(일본은행) ○ 5월 산업활동동향지수 발표(경산성)